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요엘**

시대의 징조

(요엘1장 1-20절)

원로목사 **이종윤**



요엘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의 학설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요시아 왕 때에 씌어졌다고 하고, 이사야서보다도 먼저 씌어진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B.C 6세기경에 씌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때를 분별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 요엘의 메시지

“늙은 자들이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2절).

늙은 사람들은 한 시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늙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늙은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에도 있었는지 후손들에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요엘은 늙은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늙은 사람들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뒤로 물러가 있을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보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읽어주어야 합니다.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4절).

위의 말씀은 재앙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먹고도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은 단 번에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기시어 회개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의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취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5절).

취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침략하므로 인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끊어 말갱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7절).

사람이 수고하고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농부들은 땀 흘리고 씨를 뿌려 가꾸었으나 얻을 것이 없습니다. 창고가 비고 곡식

이 시들었습니다(11절). 물질은 더하시는 이도 하나님 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취한 자들도 농부들도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너희는 굶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13절).

제사장들은 밭의 곡식에 의존하는 소제와 포도나무의 소산에 의존하는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슬피 울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당하는 비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들어야 합니다. 재앙은 결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위기가 얼마나 가깝게 닥쳐왔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울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망할 것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2. 요엘의 교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14절).

금식일을 정하라는 것은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회는 공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도 원하시지만 함께 모여 하는 민족적 회개를 더욱 원하십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애원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씨가 흫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공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다”(17절).

다음 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저장했으나 이것까지 흫덩이 아래에서 썩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습니다(18절).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 만물까지도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울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영원히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성도의 직임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은혜롭게 진행 중

매 주일 찬양예배 시 - 이종윤 원로 목사

지난 4월 23일부터 찬양예배 시 이종윤 원로목사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계속 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강해하기에 매우 난해한 성경책으로 성도들이 많이 접

하지 못했지만 꼭 한 번은 공부하고 이해해야 할 책이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물론 주위에 많은 분들께 이 귀한 시간을 소개하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천지(이단)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적발시 예배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 152조), 퇴거불응죄(형법 제 319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 31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교회

아빠, 엄마 사랑해요



교회 어르신들 초청 잔치



중고등부 학부모초청예배

부모님



정현구 집사 (고등부 부장)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중고등부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하는데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심혈을 기울였고 부모님들 또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풍선으로 장식한 무지개를 통하여 들어오신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학생들로 구성된 특송팀은 고등부 김은초 학생이 직접 편곡한 '어머니은혜'와 '나의 사랑하는 책'의 바이올린과 플룻 연주는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배순서 중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의 손을 함께 잡고 축복의 기도를 할 때는 서로의 간절한 마음이 잡은 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김재용 학생과 공지혜 학생이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마음으로 전하는 시간에는 감동의 눈물이 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슴을 적셔주었습니다.

2부 특별순서후 8층에서 부모님과 다과 의 시간은 부모님과 선생님들 간에 소통의 시간이 될수 있었고 많은 학생에 대해 기도 제목 등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참으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고등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올바른 지도자를 키우는데 모든 성도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지혜 (고등부)

매년 어버이날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쓰는 것도 참 어려운데 전 이 어려운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내네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공부를 좀 더하긴 하는데 공부해야 할 양이 더 많아져서 걱정이 됩니다. 여고에 오니까 친구들이 무엇이든지 다 잘하네요. 이번에 성적을 잘 받았어야 했는데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냥 "엄마 아빠 고생하지 않게 재수만 하지 말자"하는 심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우리 가족이 너무 좋다"고 말하니깐 저처럼 가족 자랑하는 애는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고 했으면 제가 과연 지금 공부했을까 싶네요. 아마 청개구리 본능이 튀어나와서 끝없이 놓았을 거예요. 사실 엄마, 아빠 미울 때 진짜 많아요.

요즘에는 잔소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밥 매일 싸 주시고 공부 방법 같은 것 인터넷에 찾아 보시고 열굴에 수분크림 발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털어놓은 고민 하나 하나가 다 엄마, 아빠의 고민이 되었잖아요. 제 말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안하는 말하기는 한테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오늘거리서 못 할걸요? 엄마, 아빠 저한테 이렇게 좋은 신앙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곁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신 저 혼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 기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로 흘린 눈물, 다 하나님께서 닦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봤을 때 엄마와 아빠는 정말 성공한 '엄마, 아빠예요' 저도 나중에 엄마, 아빠와 같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식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김재용 (고등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편지를 써봅니다. 평소 편지를 쓰지 않았고 글 역시 잘 쓰지 못하지만 제 마음을 쓰려고 해요. 아마도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 없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아마도 엄마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시의 한 구절을 여기 적어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이에요. 동경에서 운동주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라고 해요. 혼자 외국에서 살던 시인이 찾고 바란 것은 결국 부모님이었어요.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부모님께 의지하게 돼요. 그런 저를 잘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자면 제가 지금 '서울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도 부모님 덕분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길러 주시고 믿음을 크게 해주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성경 말씀대로 저를 잘 양육해 주신 것 감사드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점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어 여기에는 전부 쓰지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쓰고 끝내려고 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김수진 성도, 유수정 성도 (디아스포라부)

새로운 한 발자국을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글을 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오늘 서울교회 순례자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성경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성경말씀은 저의 삶속에서 커다란 좌우명이 되어 오늘날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모두 알 수 없지만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불꽃씨 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세상을 향해 한 발자국씩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북한은 세습 독재정치로 인하여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닌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국민을 노예로, 국가재산이 특권층의 호의호식에만 집중되어 민주주의 국가의 길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 3번의 투표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향하여 준비된 통일 한반도에서 할 수 있는 비전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자를 강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저희들 옆에 계셔서 이 세상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항상 지켜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장항수 집사(13교구)

명품(名品) 짜장면을 아십니까?



우리 서울교회의 수많은 자랑거리중 하나는 어린이 주일의 별식인 명품 짜장면 입니다. 올해는 어렵지만 한 교회 사정으로 명품 짜장면은 희망사항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홍 장로님께서 짜장면 준비를 위한 헌신의 기회에 불러주심으로 진정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짜장면 봉사는 몇 차례 섬김의 경험이 있었으나, 올해는 우리 서울교회가 처한 힘든 상황이라 최고의 명품을 만들고자 더욱 열과 성의를 다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짜장면을 명품이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교우들의 섬김 자세가 첫 번째 명품 짜장면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이고, 신선한 재료 선정, 구입 등에 소홀히 하지 않음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척, 절단, 그리고 지지고, 볶아서 짜장을 만들고, 땀범벅이 될 정도로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면을 삶아서 쫄깃한 면

으로 변신시킴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 교우들께서 십 수 년째 인정해주시는 자칭 최고의 맛, 명품 짜장면이라는 자화자찬을 함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행복하게 접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잠시동안의 고단함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다만 교회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함께 수고와 헌신을 해주신 분들께 섬김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기막힌 명품 짜장면을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런 맛있는 명품 짜장면을 주님께도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내려보시고 한껏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명품 짜장면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 때는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고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웨민홀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웨민홀에서 새벽기도회를 드린다. 교회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주중에는 인터넷영상으로 드리지만 토요일만이라도 교회에서 드리자는 성도들의 요청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웨민홀에서의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그간 많은 성도들이 영하 10도를 뚫는 겨울에도 교회 회

복의 간절한 소망을 안고 교회 앞마당에서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5월27일(토) 한국로잔위원회 5월월례모임에 참석한다.

■ 지난 주 찬조 및 간식 협찬 : 김해중 이순영 이정연

■ 이번 주일 식사 제공 : 이준호3 집사 이은희7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권사회 야외 예배

제1,2 권사회가 5월 23일(화) 각각 아가페타운과 광림수도원으로 야외예배를 간다. 제1권사회(회장 장호림권사, 제2권사회(회장 김찬진권사) 모두 오전 9시 30분 정각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자연 속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 회원 간 사랑의 교제로 아름다운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권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스데반회 야외 예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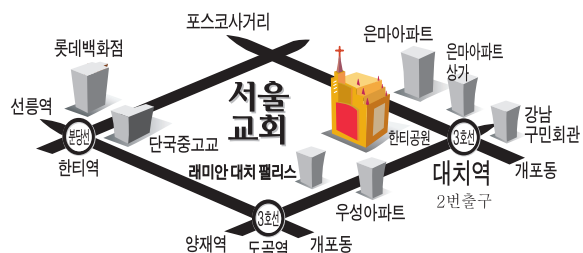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2. 다락방 모임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